

계율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안해도 부처가 된다

해남 스님(영축총림 통도사 율주)
'율장에 담긴 수행결사'

두 번째 법주 해남 스님(통도사 율주)은 8월 5일 '율장에 담긴 수행결사'를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율보다 중요한 것이 계이다. 계는 참된 수행을 위해 스스로 맹세하고 지키는 것이다"라며 "계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불교의 수행이 아니다.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해 계의 근본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법문했다.

계와 율이란

계율(戒律)이라는 것은 본래 '경계하다, 조심하고 주의하다, 타이르다'라는 뜻을 가지는 계(戒)와 법령(法令)을 뜻하는 율(律)이 복합된 말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계는 스스로 맹세하는 자기 다짐이다.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착하지 못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착하지 못한 말이 입을 나가지 못하도록 조심하고, 착하지 못한 발걸음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뜻이다. 즉, 자기 마음을 잘 단속해 쓸데없는 말을 삼가고 법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맹세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법문에 감동해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절하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고 말하고 말하면 삼귀의계가 성립된다. 이어 '이 목숨 다하도록 죽이는 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목숨 다하도록 도둑질하는 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목숨 다하도록 사음하는 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목숨 다하도록 거짓말하는 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목숨 다하도록 술마시는 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면 오계가 성립된다.

오계에서는 특정 행위를 꼭 지키겠다는 아닌,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부득이하게 내가 파리 한 마리를 죽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살생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계는 부처님이 제정하신 삼귀의계, 오계, 십계, 구족계 등과 관계없는 자신만의 계를 맹세할 수 있다.

율은 다르다. 율은 규칙적이고 규율이다. 강제적이다. 율은 계와 달리 반드시 그 규율을 지켜야만 한다. 율은 반드시 부처님만이 제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제정하지 못한다. 출가자가 지켜야할 규율을 모아 놓은 것을 삼장(三藏)이라고 한다. 이 삼장 가운데 율장이 있다. 출가 수행자는 계를 자발적으로 지키지 못할 때 율장에 의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돼있다. 예로 오계를 수지한 재가불자는 계를 범했을 때, 스스로 참회하고 자기 마음이 편하도록 속죄물을 바치거나 참회기도를 올려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된다. 그리고 다시는 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된다.

출가제자는 승가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 생활하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오

편칠취(五篇七聚)에 의해 죄의 무게에 따라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 가령 사람의 목숨을 죽이거나, 오전 이상의 돈을 도둑질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았다고 거짓말을 하면 '바라이'라 해 교단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그 다음 13가지 죄를 지으면 6일 이상 외딴 곳에 따로 살면서 참회하고 반성해야 한다. 죄에서 풀려날 때는 20인 이상의 승가에서 풀어줘야 좋다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

역경하는 스님이 '율(律)'을 '계(戒)'라고 번역한 것은, 타율적인 것이 있더라도 수행의 입장에서 자기 수행을 위해 스스로 맹세해 지키라는 뜻에서였다. "율은 불법의 수명이다. 율이 흥하면 불법이 성하고 율이 무너지면 불법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

부처님 당시에는 경전도, 율장도 없었다. 부처님은 수행자를 만나면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 수행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율장이 생긴 것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부터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자 500백 비구들은 몹시 슬퍼했다. 그때 발나타리는 이가 비구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며 "그대들은 근심말라. 세존이 멸도하시니 우리들은 자유다. 이것은 해야 한다.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잔소리로부터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가섭존자는 불법 소멸을 걱정해 3개월 뒤 필발라국 칠엽굴에서 500명의 아라한을 초청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편집했다. 그때 가장 먼저 율장이 편집됐다. 율장이 제정된 10가지 이유는 이렇하다. 첫째 대중을 감싸 안아 주기 위함이다. 둘째 대중을 화합시키기 위함이다. 셋째 대중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다. 넷째 길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길들이기 위함이다. 다섯째 누워있고 부끄러워하는 자를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섯째 아직 불법을 믿지 못하는 자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일곱째 이미 믿는 사람에게 믿는 마음을 증장시키기 위함이다. 여덟째 현재 세상의 번뇌를 끊기 위함이다. 아홉째 후세의 탐욕으로 인한 나쁜 업을 끊기 위함이다. 열째 율 바른 법이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계는 율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율은 남이 무서워 지키는 것이지만, 계는 참된 수행을 위해 스스로 맹세하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를 지키는 것은 글을 지키기보다, 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계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율을 지켜도 불교의 수행이 아니다. 부처님도 유언 법문에서 "계로서 스승을 삼아라"라고 말씀하셨다.

계의 사과(四科)

원효 스님은 "계의 조목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은 천박한 것이며, 그 정신을 체득해 걸림 없이 도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심오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능 스님 역시 "마음 발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 계이다"고 하셨다.

계는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서 정할 수 있다. 신라 시대 자장 스님은 출가해 산중에서 수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선덕여왕은 사신을 보내 자장 스님에게 국정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스님이 부탁을 거절하자, 선덕여왕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목을 베어 오라고 명했다. 이 말을 들은 자장 스님은 "내 차라



해남 스님은... 해남(海南) 스님은 1963년 창녕 관음사에서 득도, 67년 부산 대각사에서 사미계를 받고 70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7년 대흥사 강원에서 운기 스님을 강사로 전강을 받은 후 1987년 일본으로 건너가 대정대학에서 공부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법주사 승가대학에서 강주교 학인들을 지도했고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교수를 역임했다. 2000년 제2대 조계총림 승가대학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통도사 율주후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계(戒)는 습관 행위 도덕 경건의 뜻 있어

불교의 계는 스스로 맹세하는 자기 다짐

역경승이 율(律)을 계로 번역했던 까닭은

타율적인 것도 자기 수행으로 섭수하란 뜻

리 하루 동안 계를 지키고 죽을지언정 파계하고 100년 동안 살기를 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장 스님 당시에는 정식으로 계를 받기 이전이다. 이것은 '도를 이루기 전에는 결코 산을 내려가지 않겠다'고 자신만의 맹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

계라는 말의 어원은 범어로 시라이다. 습관, 행위, 도덕, 경건 등의 뜻이 있으며 넓은 뜻으로는 좋은 습관 나쁜 습관에 두루 통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이 계를 받으면 계의 몸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계체라고 한다. 이것은 계법(戒法), 계체(戒體), 계행(戒行), 계상(戒相)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계법은 말 그대로 부처님이 제정하신 삼귀의계, 오계, 십계, 구족계, 보살계 등을 말한다. 계법은 오로지 부처님만 제정할 수 있다. 계를 설명하는 사람도 참선에 대한 경험과 교리에 대한 이해와 계율의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

계체란 계의 몸, 계의 근본, 계의 본질이다. 계법을 받으려는 사람이 계사스님의 작법에 의해 마음속으로 부처님 계법을 꼭 받아 지녀 파하지 않겠다는 굳

을 결심을 가짐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계의 몸을 뜻한다. 계행이란 마음으로 맹세한 계체를 바탕으로 계법을 마음에 새기고 외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계상은 계행이 밖으로 표출되는 모습을 말한다.

여기서 계체는 부파에 따라 조금 견해가 다르기도 하다. 부파불교의 실일체유류에서는 형상이나 빛깔로 나타낼 수 없는 물질이라는 뜻의 무표색(無表色)을 계체로 삼고 있다. 몸으로 짓는 업이나 입으로 짓는 업은 함께 무표색이라는 색법(色法)이라는 것이다. 반면 경량부(輕量部)에서는 무표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계의 실천은 모두 마음의 작용이고 실제로는 생각이라고 주장한다.

소승의 계는 수계할 적에 "목숨이 다할 때까지"라고 시간적인 제한을 정해 놓고 계를 받는다. 비구의 250계 비구니의 348계를 몸과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만 계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대승보살계에서는 한번 계를 받으면 영원히 계체를 잃는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살영락경>에서는 "일체의 보살 범부와 성인의 계는 마음이 다함으로써 체를 삼는다. 그러므로 마음이 다하면 계도 다하겠지만 마음은 다함이 없는 연고로 계도 또한 다함이 없다"고 했다. 죽어서도 계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법망경>의 보살계

보살계는 심지계다. 마음으로 지키는 계다. 보살심은 아누다라삼막삼보살심이다. 즉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문수 보살의 가르침에 의해 53선지식을 만날 때 "나는 이미 위없는 올바른 진리를 깨달으려는 마음을 일으켰다.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승불교에서 보리심은 아주 중요하다. 보리심의 공덕에 대해 미륵 보살은 "만일 사람이 활쏘기를 배우려면 먼저 그 발을 편안하게 한 뒤에 활 쏘는 법을 익히듯, 부처님의 일체의 도리를 배우려 한다면 먼저 마땅히 보리심에 안주한 연후에 일체불법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리심의 공덕에 대해서는 "등불이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백 천년의 어두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과 같이 보살마하살의 보리심 등불고 이와 같아서 중생의 마음 방의 안으로 들어가면 백천만여 해아릴 수 없는 곁 문안에 지은 모든 번뇌 업장의 가지가지 장애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했다.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계를 파해도 보리심을 버리지 않으면 완전히 파계한 것이 아니다. 법안종의 제3조인 영명연수 선사 "새벽에 계를 범해 응당 죄를 받아야 할 사람도 나중에 보리심이 끊어지지 않으면 계를 성취해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망경>의 보살계는 불승계이다.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을 갖고 있지만 세월이 걸쳐 지은 업장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 중생들이 보살계를 받으면 자신의 불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계를 한번 받으면 계체는 영원히 금강보계라고도 한다.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보살계를 받을 수 있다. <법망경>에서는 "범사의 말을 이해하기만 하면 누구나 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마음이 있는 중생은 모두 부처님의 계를 받으라고 했다. "계를 받고 범하면 보살이고, 계를 받지 않으면 외도이다"라는 말이 있다. 업장이 두터운 중생이 계를 받아서 범하면 오히려 더 업장이 두터워질까봐 계를 받지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업장이 두터울수록 계를 받아야 한다. 보살계에서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 지위에 올라가는 사다리라고 같다.

보살계는 반드시 받아야 하고 남에게 권해야 한다. <영락경>에 이르기를 "만약 과거 현재 미래 일체 중생 가운데 보살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식(情識)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축생과 다름없고, 사람이라고 이름 할 수 없다. 보살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어서 축생이라 부른다. 계를 범함은 있어도 미래제가 다하도록 잃는 일은 없다"고 말한다.

보살계는 그 공덕을 설명해 아내, 남편, 아들, 딸, 며느리는 물론 친구, 일가친척 모두에게 권유해야 한다. 보살계는 받는 즉시 공덕이 된다. <문수보살경>에는 "어떤 사람이 반야실함을 듣고 만약 비방을 일으켜 믿지 아니해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항상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것 보다 수승하다"고 했다. 그러나 업장을 많을수록 보살계를 받아야 하며, 보살계를 받으면 업장이 소멸된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점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tal Echo

• 高音質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역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편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500,000원 (상차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135,000원 (일반형) / 175,000원 (고급형)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탕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장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부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